

古小說의 偶然性 再檢討

許 椿*

目 次

- I. 序 論—問題의 提起
- II. 本 論
 - 1. 偶然性 論議의 觀點
 - 2. 作品에 나타난 諸樣相
 - 3. 事件의 合理性을 위한 機制
 - 4. 古小說의 觀念的 必然性
- III. 結 論

I. 序 論—問題의 提起

고소설의 사건 구성은 대체로 偶然性¹⁾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우연성은 非事實性, 非現實性, 不合理性과 상통하는 의미로, 사건 전개에 있어 必然이 아닌 우연의 일치가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고소설은 荒唐無稽하다며, 이를 “非科學的인 中世紀文學의 共通性”²⁾으로 인식하였다. 事件 展開에 있어서 偶然性和 傳奇性을 濫用하여 事件을 非現實的으로 展開시켜서 傳奇文學의 形態를 完全히 脫皮하지 못하였다³⁾는 지적은 최근의 소설론에서도 이어져 오는 공통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작품의 구성을 인과적·합리적 사고만을 통해 본 것이며 사실주의 소설의 관점에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1) 偶然의 一致 (coincidence)와 偶發性 (contingency)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쓴다. II-1 에서 詳論.

2) 우리어문학회 編, 「國文學史」, 秀路社, 1948, p.131.

3)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1959, p.584.

입각한 상대적 평가라고 생각한다. 또 고소설의 관습과 독자의 비중을 소홀히 한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작품 평석의 척도는 항상 그 작품을 생성케 한 문화적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소설이 단순히荒唐하기만 하다면 어떻게 당시의 독자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었겠는가? 고소설이 세계 양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 점에서 고소설 풀뚝의 배경에는 "현실과 소설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관여하고 있고, 그것은 그 나름의 당위성을 지닌다."⁴⁾는 언급은 示唆的이다.

조선조 사대부들이 소설을 배격한 이유⁵⁾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소설이 虛構之說이라는 점이었다. 소설은 거짓을 꾸미고 空論을 일삼으며 귀신이나 꿈같은 怪誕한 이야기와 남녀의 일만을 말하고 있어서 역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⁶⁾ 그런데 이는 공식적인 태도이고, 조선조 후기에 오면 소설의 효용적 가치와 허구성을 인정하게 된다. 즉 事必歸正이라는 유교적 덕목에 입각하여 작품을 평가하고 있다.

우연성 문제를 당시의 시대적 성격과 세계관에서 또는 작품내적인 구조에서 해명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⁷⁾ 이러한 연구는 사건 구성의 합리성을 밝히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문

4) 金東旭·黃滄江, 「韓國古小說入門」, 開文社, 1985, p.75.

5) 조선조의 소설론에 관해서는,

李家源, 「英正代 文壇에서의 對小說의 態度」, 「延世大八十周年紀念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延世大學校, 1965.

윤성근, 유학자의 소설 배격, 「語文學」25輯, 韓國語文學會, 1971.

成賢慶, 「19세기 朝鮮人의 小說觀: 「夢遊野談」 著者의 경우」, 「冠岳語文研究」3輯, 서울대 國文科, 1978.

吳春澤, 「朝鮮前期의 小說意識」, 「語文論集」23輯, 高麗大 國文科, 1982.

張孝鉉, 「조선후기의 小說: 필사본 소설의 序·跋을 중심으로」, ibid.

李文奎, 「國文小說에 대한 儒學者의 批評意識」, 「韓國學報」32輯, 一志社, 1983. 等を 參考한 것.

6) 小說有三惑 架虛鑿空 談鬼說夢 作之者一惑也 羽翼浮誕 鼓吹淺陋 評之者二惑也 …(李德懋, 「靑莊館全書」卷五, 吳處雜稿 一, 歲精情譚)

小說雜記……非鬼神怪誕之說 則皆男女期會之事 其不乃諸史遺矣(鄭泰齊, 「天君演義」序)(윤성근, ibid., p.51. 再引.)

今歷代各有演義 至於皇朝開國聖典 亦用誕說敷衍…(李植, 「澤堂先生別集」卷十五 雜著)(ibid., p.54. 再引.) 等.

7) 우연성에 관한 직접적 연구로는

한경호, 「胎夢을 통해 본 古代小說의 偶然性」, 「飛騨論集」創刊號, 啓明大學徒護團團, 1978.

徐仁錫, 「고대소설에 있어서의 '偶然性' 문제: 劉忠烈傳을 중심으로」, 「先濟語文」10輯, 서울대 國教科, 1979. 가 있고,

金一烈, 「古代小說의 二元論的 世界觀과 儒敎」, 「語文論叢」8號, 慶北大 國文科, 1973.

趙東一, 「新小說의 文學史의 性格」, 韓國文化研究所, 1973.

——,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1977.

成賢慶,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嶺南大出版部, 1981.

朴湧植, 「古小說의 原始宗教思想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6. 等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학적 관습과 사상적 基礎 그리고 작자·독자 의식을 바탕으로, 우연성을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고소설의 결함이 아닌 한 속성임을 밝히는 데에도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소설에서 伏線을 깔고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독자에게 설득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고소설 작자·독자의 세계관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이 우연으로 느끼지 않으면 우연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사건은 이미 그 자체로서 필연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本稿에서는 고소설에 나타난 사건의 양상을 통해 사건의 합리성을 위한 機制들을 살펴보고 작자·독자의식을 검토하므로써, 사건이 우연성을 떨 수밖에 없는 觀念的 必然性을 밝혀보고자 한다. 해서 흔히 고소설의 결함으로 지적되는 사실성의 결여를 재고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려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검토 대상 작품은 유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金鈴傳」, 「洪吉童傳」, 「九雲夢」, 「趙雄傳」, 「謝氏南征記」, 「沈濟傳」 등 6편을 주자료로 하였고, 「安樂國傳」, 「金牛太子傳」, 「田禹治傳」, 「劉忠烈傳」, 「淑香傳」, 「蕃花紅蓮傳」, 「雲英傳」, 「林花鄭延」 등을 방증자료로 삼았다.

Ⅱ. 本 論

1. 偶然性 論議의 觀點

고소설은, 관념적 이념을 풀뚝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 인과적 논리에서 벗어난 우연성이 나타나게 된다.⁸⁾ 어떤 상황을 급전 또는 상승시키는 행복한 결말의 고소설에서는 이는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현대의 폭로의 풀뚝(plot of revelation)과 다른 전통적인 해결의 서사(narrative of solution)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문제와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문제를 형성하거나 그에 대한 답변을 늦추는 우발적 사건들을 형성하게 되므로⁹⁾ 고소설은 자연히 우연성을 보이는 것이다.

우발적 사건은 그 자체로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로맨스적 구조로 볼 때, 이는 결함이라기보다 "서사적 양식의 역사성"¹⁰⁾이라 할 일종의 관습적 행태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소설의 창작의도가 지상의 질서를 천상의 메시지를 통해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면, 우연이 善側에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결국 이 목적을 위함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조선조 후기로 올수록 사건의 배열과 선택에 대한 의식이 싹터서 그 나름의 여러가지 장치를 통해 합리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8) 조정래·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1, p.80.

9) S.Chatman 著, 김경수 譯,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이야기와 담화」, 민음사, 1990, p.55.f.

10) Op.cit., p.25.

여기에서 두가지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고소설의 세계관이다. II-4.에서 후술하겠지만, 고소설의 세계관이 초월주의적이냐 현실주의적이냐 하는 점은 작품을 평석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고소설은 독자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¹¹⁾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하나의 이념으로 묶어 준다. 문학 작품은 집단의식의 갈망에, 그리고 집단의식의 경향에 상응하는 것이므로¹²⁾ 현실에 대한 적용과 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합리적 세계관으로 바뀌어 가는데 맞추어 소설도 변하고 있으나, 그 변화가 매우 완만한 데다 전통적 양식의 영향으로 인해 초월주의적 경향을 띠게 된다. 작가는 항상 시대를 앞서가게 마련이지만 그 정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작품은 항상 독자와 관련을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연의 일치 또는 우발성의 개념이다. 설화나 고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우연의 일치는, 필연적인 인과율이나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며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관 반영의 일환으로 리얼리티(reality)에서 벗어나 작가의 자의성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를 보다 광범하고 오묘하게 해주며 신기와 경이로움으로 소설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기도 한다. 인과성(causality)과 우발성은 사건들이 하나의 서사물을 형성하기 위해 상호 관련되는 두 가지 방식을 의미하며, 인과성은 드러난 것일 수도 있고 암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¹³⁾ 우연의 일치는, 당연한 듯 여겨지나 확실히 증명되지 않고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probable-impossible),¹⁴⁾ 즉 있음직한 불가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蓋然性을 증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폄시하고 있지만,¹⁵⁾ 책의 낱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뒤섞어 읽어내려는 독자의 서사적 시도는 뜻밖의 상황(각 페이지들의 무작위적인 병치)조차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¹⁶⁾ 이 점은 고소설의 독자에게도 하나 그르지 않다.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필연성(necessity)을 물리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으로 구별하고 있는데¹⁷⁾, 현대소설은 논리적 필연성이 승하지만 고소설에서는 물리적 필연성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연성은 인과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를 일컫는바, 고전적 서사물에서의 주요사건들은 "우연성의 사슬의 부분"¹⁸⁾이므로 고소설의 세계관과 서

11) Cf. N. Frye, 임철규 譯, 「批評의 解剖」, 한길사, 1982, p.260.

12) L. Goldmann, "발생구조론이란 무엇인가", 김치수 編譯,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弘盛社, 1980, p.262.

13) 한용환,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1990, pp.281~284. passim.

14) Joseph T. Shipley, ed., *Dictionary of World Literature*, Totawa, New Jersey, Littlefield, Adams & Co. 1972(New Revised Edition), p.66.

15) 소설에서 우연의 일치를 금기시하는 것은, 베이컨 이래의 경험주의에 대한 데카르트류의 합리주의의 승리라 하겠다.

李商燮 編, 「文學批評用語事典」, 民音社, 1976, p.32.f.

16) S.Chatman, op.cit., p.55.f.

17) Cf. Saul A. Kripke 著, 정대현·김현주 譯, 「이름과 필연」, 서광사, 1986, p.47.

18) Op.cit., p.61.

사양식의 역사성을 감안할 때 우연성은 고소설의 한 속성으로 파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작품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

2. 作品에 나타난 諸樣相

가. 金鈴傳

이 작품은 꿈과 변신을 서사적 기둥으로 삼아 이루어진 작품이므로¹⁹⁾ 다른 작품에 비해 우연적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전개 과정에 따라 우연적 계기를 보이는 사건을 摘出해 보면 아래와 같다.²⁰⁾

1. 피란 길에 버려진 해룡을 본 도적 장삼이, 해룡을 죽이려는 동료들 말리고 이 아이는 귀히 될 기상이라며 해룡을 데리고 강남 고군으로 달아나다. (2장)
2. 장공 부인이 숨이 지매, 방울이 報恩草를 물고 와 부인을 소생시키다. (8장)
3. 일일은 금령이, 해룡이 버려진 형상을 그린 죽자를 장공 앞에 물어다 놓다. (8~9장)
4. 금선공주가 홀연 달려드는 괴이한 물건에 시녀와 함께 납치당하다. (9장)
5. (구호동 田庄에서 해룡이 虎患을 당하려는 때에) 홀연 등 뒤에서 금방울이 내달아 두 범을 죽이고 발을 대신 잡아준다. (12장)
6. 일일은 소룡이 나가 놀다가 살인하고 들어오다. (13장)
7. (소룡 대신 자수한) 해룡에게 형장을 치는 족족 지현의 아이가 울며 기절하다. (14장)
8. 放送된 해룡을 집에서 자게 하고는 번씨가 해룡의 방에 불을 질렀으나 오직 外軒만은 불이 범하지 아니하며 목숨을 구하다. (15장)
9. 이 때 북방의 흉노 천달이 대원을 회부코자 함에, 출전한 해룡이 양산곡 중에서 적장 호각의 제교에 속아 칼을 빼어 自刎코자 할 때 문득 서남간으로부터 금빛이 떠오르며 나타난 금령이 구해준다. (21~22장)
10. 간밤에 금령이 이 것을 두고 간 곳이 없다며 황후가 주는 죽자(해룡이 버려질 때의 상황이 그려짐)를 해룡이 간수하다. (23장)
11. 어사를 재수받고 각지를 순무한 해룡이, 돌아가다가 노양 객사에서 유하게 되었는데, 그 곳 지현이 바로 해룡의 부친이라. (24장)

고소설에 공통된 현상으로서, “문득, 홀연, 마침, 우연히, 이때, 일일은, 하루는, 하필, 난데

19) 朴湧植, “金鈴傳”, 玩藏金鎖世先生回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編, 「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 pp.449~450.f.

20) 꿈 자체는 우연히 하겠으나 이는 天定임을 일깨워주고 앞일을 예시하여 행동을 지시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건 제시에서 제외하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요약했다. 현대어, 띄어쓰기, 한자, 밑줄은 필자. 이하 같음.

대본은 이야기의 변개가 적다고 판단되는 京板 28張本으로 한다. (金東旭 編, 「景印古小説板刻本全集」(以下「板全集」) 第四冊, 羅孫書屋, 1975.)

없는, 뜻밖에"와 같은 말로 우발적 사건의 발발을 보여 주며, 꿈을 통해서는 사건의 결과까지 암시하고 있다. 종교적이거나 奇異한 이야기를 서술한, 傳奇性이 짙은 작품에서는 이러한 상투어가 더 빈번히 쓰인다.²¹⁾ 그리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족자, 보검, 신물, 신표 같은 매개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색채운이나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 등을 통해 신빙성을 주려 하고 있다.

단락 2., 3., 5., 7., 8., 9., 10.은 금령의 신이한 능력에 의한 것이니 괴이한 느낌을 받지 않는다. 금령의 전신이 龍女이며 해룡의 전신 역시 東海 龍王의 三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따라서 독자 역시 크게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볼 곳은 1., 4., 6., 11.이다. 마침 난리가 일어나 장원 부부가 피란 길에 해룡을 버리는데 왜 하필 이 때 난리가 일어났으며, 수많은 도적 중에 장삼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규명하려는 것은, 의의도 없고 불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마치 이 작품명이 왜 「金鈴傳」이나 하는 질문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작자는, "원이 망하고 터명이 중흥하니...이찌 먼지 슈명어면하시나 히니미정하여 후칭위왕하고 후칭조(新 國)왕하여 남서로 노략하니...(1~2장)", "내(장삼-筆者 註) 위세의 꾀박하여 군오(軍伍)의 물입하여스니 엇지 본심이리오(2장)"처럼 전후상황을 설명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공주가 괴물에게 납치당하는 일은 설화·소설에 흔한 모티프(motif)인데, 이 괴물은 대체로 용력이 절륜하고 신룡한 힘을 가졌다. 공주를 납치한 대격을 除治함으로써 해룡은 능력을 과시하고 부마가 되는 계기가 되지만, 이 경우 하필 금선공주가 납치되었는가 하는 의문은 懸問이라 하겠다.

고소설은 꿈의 豫示를 통해 한 사건의 앞일 뿐 아니라 작품 전체의 결말까지 암시하는 일이 많은데 특히 傳奇的 요소가 강한 작품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꿈에서는 작중인물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독자에게 하늘의 뜻임을 강조하여 사건에 당위성과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니, 이는 二元論的 思考²²⁾의 반영이요, 초월주의적 세계관²³⁾의 표출이라 하겠다. 물론 예시의 방법이 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도 오색채운이나 공중에서의 부르짖음, 보통 사람의 知鑑이나 예언 등이 있으나, 대체로 꿈을 통한 방법이 압도적이다. 꿈은 現實과 理想 此岸과 彼岸의 境涯를 동일한 궤도 속에 묶는 超單位이면서 이 둘을 반사하는 거울²⁴⁾이라 할 수 있으니, 꿈을 통해 천상계와 지상계가 연계되고 있다. 그리고 보조도구의 활용을 통해 사건을 좀더 현실감 있게 해주고 흥미를 더하고 있다.

독자는, 구름 속에서 청룡이 내려와 해룡과 남해 용왕의 八女의 부부지연이 옥제의 명으로 있

21) (婆羅門 化主가 인질집(人施主)을 가는데) 문득 물 가운데서 백발노옹이 蓮葉船을 타고 공중에서 대답하되... (『安樂國傳』(p.95))

출연 전자가 무너지거늘 왕이 대경하여... (『金牛太子傳』(p.119)) 等.

金起東 編, 『李朝傳奇小說選』(以下「小說選」), 正音社, 1978.에 의함.

22) Cf. 金一烈, op.cit.

23) 고소설이 基底하고 있는 세계관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으나 초월주의와 현실주의적인 면이 혼효되어 있고 조선조 후기로 올수록 후자가 부각되는 중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자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자연히 작품의 리얼리티와도 연관된다.

24) 朴湧植(1986), op.cit., p.128.

음을 알려주는 장공의 꿈(1~2장), 명일 午時에 올 一位 秀才는 동해 용왕의 아들로서 그대와 연분이 있다고 알려주는 금선공주의 꿈(16장)에서 이미 금령·해룡의 前身과 부부지연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작품의 결말이 어떠한지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난리통에 버려진 해룡을 본 도적 장삼은 "이 아희 상을 본즉 귀히 될 괴상이라(2장)"며 데리고 달아났는데, 해룡은 등에 붉은 사마귀 七星이 있었다. 족자, 몸의 신표같은 보조도구는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건이 풀리는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伏線이다. 神性이 약화되어 人間性이 강해진 주인공이 천상계의 의도를 지상계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조도구의 힘을 빌리게 된다. 그런데 천상계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삶을 위한 사회 질서의 유지라는 면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소설은 事必歸正, 逆天者必亡이라는 독자의 세계관과 일치할 때라야 호응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꿈을 詳述하기 위해 金三郎의 처 莫氏가 시어머니의 廬幕에서 얻은 꿈을 보자.

동적 나와 널오더 우리 스취 옥데 명을 받조와 견하러 하시니 빗비 나아가 뵈오라 하거늘...막 시더러 왈 그더의 덕절(大節)과 지효(至孝)를 옥데 알으시고 극진이 표창하라 하시미 주식을 점지하러 하더니...(황사한 남해 용녀와 동해 용자 중) 동원 농주는 맛춤 조흔 곳이 사서 구처(敎處) 하여스되 농녀의 거처를 경치 못하여 이제 내려와 그더를 주느니 십육년 후의 얼굴을 볼거시니 이제 보았다가 후일 츄등업제 하라 (하며 선관들이 용녀에게 오색명주, 부채, 紅扇, 힘을 주고 母女之間의 倫紀를 위해 난중에 죽은 三郎을 잠시 보내 부부의 정을 맺게 하니 十期後 금광이 찬란한 금방울을 낳았다.) (3장)

16년 후에는 인간으로 변신하여 부부지연을 맺을 것이므로 그 사이의 艱難은 예정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선관들에게서 오색명주, 부채, 紅扇, 혹은선관의 힘 등을 받았으므로 독자들은 금령의 기이한 행적(보온초를 물고 와 장공 부인을 소생시킨 일, 변씨에게 학대받는 해룡 대신 방울 던져 하고 방아를 쥘어주며 눈을 치워준 일, 변씨 모자가 오능령에서 강도를 만나 알몸으로 나무에 매달리게 한 일, 愆願愆沒한 일, 해룡이 소룡의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옥중에서 칼을 쓰고 있으나 비단 이불을 덮고 자며, 해룡이 매를 맞음에 지현의 세살 난 아들을 족족 울며 기절하게 한 일 등)에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금령이 아홉 머리 악귀에게 먹혔을 때 구름 속에서 "그더 엇지 금령을 구치 아니하고 겨리 방황하는다" (16장) 하는 부르짖음이 있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해룡도 큰 용을 타고 들어온 아이이므로(장삼 처의 꿈) 해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또한 괴이하지 않다.

게다가 작자는 이 정도로는 미흡하게 생각하여 叙述者(narrator)의 개입이나 작중인물의 말을 빌려 豫示하며 합리화하고 있다.

(장삼이 옥중에 해룡에게 혈육이 아니라는 사연을 밝히며) 변씨 모지 어지스 못하리 나의 죽은 후 반다시 너를 휘호 거시니...(10장)

원년 금계(金령)는 먼디기벽 후의 일월경괴로 삼겨 득도하여 신통이 무궁한지라(16장)

청룡, 산신령, 막씨와 금선공주 꿈의 선관, 어사(해룡) 꿈의 백발노인 등은 하늘의 뜻을 전해 주는 轉信者요, 援助者²⁵⁾이며, 금령은 해룡에 대해 원조자역을 맡고 있다.

그런데 6.은 先行場面·後行事件²⁶⁾이나 인과관계로도 경험적 세계관에서는 합리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소룡의 우발적 살인은 누구를 왜 언제 죽였는지에 대한 전후상황 설명이 전혀 없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소룡이 평소에 누구에게 살의를 품었다든지, 성격이 지극히 난폭했다든지,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었다든지 하는 예시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문자 그대로 '우발적' 사건이다. 이를 소설적 흥미와 관련시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연은 예기치 않던 反轉을 가능하게 하고, 필연은 드러나지 않던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연이 곧 필연이라고 하는 설정은 긴장감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²⁷⁾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천상계의 의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면, 고소설의 우연성을 폭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소설적 結構가 치밀하지 못한, 고소설의 속성으로 파악해야 타당할 것이다.

11.은 '알고보니 ...였다'는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예전대 속향을 죽이려 한 낙양의 원이 속향의 부친 김전이였다(「淑香傳」, 「板全集」四(64張本), 中 8~10장)는 식의 전개는 고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지만, 사건의 極端化²⁸⁾와는 또 다른 면에서 운명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소설적 흥미를 고조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古小説의 사건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발적이지만 모두 天定으로 예정된 결말을 향해 이루어 진다. 따라서,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 萬事가 必然인데, 깨닫지 못한 자리에서 보면 萬事가 偶然²⁹⁾이라는 논술은 고소설의 우연성 설명에 많은 시사를 준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모든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 하겠다.

나. 洪吉童傳

우연적 사건을 추출해 보면 아래와 같다.³⁰⁾

25) 古小説에서의 援助者(helper)의 개념과 기능에 관해서는 許禧, “古小説의 人物 研究: 仲裁者를 中心으로”, 延世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을 참고할 것.

26) 徐仁錫, op.cit., p.156.

27) 趙東一(1977), op.cit., p.335.

28) Ibid., p.339.

29) 趙東一(1973), op.cit., p.18.

30) 판각본은 제작비를 줄이려는 판각본 소설 제작자들이 줄거리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분량을 줄였을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坊刻本 중 最善本으로 추정되며 許禧의 의식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京板 24張本인 翰南本을 대본으로 하고(「板全集」第三冊), 필요시 다른 판본을 보조 자료로 든다.

Cf. 丁奎福, “洪吉童傳 異本考(1)·(2)”, 「국어국문학」 48(p.8)·51호(p.73), 1970·1971.

이윤석, “《홍길동전》 필사본 89장본에 대하여”, 「애산학보」 9호, 1990, pp.93~94.

李文奎, “洪吉童傳”, 「韓國古典小說作品論」, op.cit., p.247.

1. (길동이)뜰에 내려 검술을 공부하더니 마침 공이 또한 月色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배회함을 보고 즉시 불러 묻다. (2장)
2. (길동이) 축을 밝히고 주역을 잠심하다가 문득 들으니 까마귀 세번 울고 가거늘 이 짐승은 본디 밤을 꺼리거늘 이제 울고 가니 심히 불길하도다 (6장)
3. (가솔한 길동이) 한 곳에 다다르니 경계 결승한지라 인가를 찾아 점점 들어가니...이곳은 도적의 굴혈이라(도적들의 魁帥가 되다.) (8~9장)

이 작품에서도 태몽(홍판서가 길동을 얻은 때의 得夢)에 청룡이 등장한다. 길동의 前身이 仙官은 아니지만 태몽에 청룡이 뛰어 들었으니 그 일생이 범상치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청룡이 “슈염을 거스리코”(1장) 홍판서에게 향해 달려든 데서는 길동의 삶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도 예시하고 있다.

상투어로서 장면 전환을 하는 것은 고소설의 형식에서 보이는 일종의 관습이다. 그런데 길동의 검술 공부와 홍판서의 月色 구경이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달빛이 밝으면 누구나 달 구경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승상이 명월을 사랑하야 창을 열고 비껴더니 길동의 거동을 보시고 놀너 7로더…”(『板全集』三, (完板 36張本) 2장)를 보면, 공이 하필 이 때 달빛을 구경했느냐를 문제 삼을 수 없다. 까마귀 울음소리가 凶兆임은 우리의 民間俗說인 바, 聞一知十하는 길동이 몸을 감춘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³¹⁾

오히려 길동의 도술 습득 과정이 없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충명이 과인하여 혼아를 드르면 비을 통하는”(1~2장) 길동이지만, 길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보조도구도 받은 일이 없고 천상계에서 돌본다는 암시도 없다. 그런데 이 작품이 순줄거리만으로 되어 있어 無味寥寂하다면서 그 근본적 책임을 작자의 역량 부족 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후진성에 돌리고 있음은³²⁾ 피상적인 관찰이다. 작자는 도술의 힘을 빌리긴 하였지만 사건의 발단과 해결을 지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계에서 맺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도술이 고소설의 한 속성임을 감안할 때, 도술 습득 과정이 없는 점은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自生的 英雄의 표출로 파악된다. 더구나 위의 예처럼 本傳은 우연성이 비교적 적은 충실한 結構를 하고 있어서, 작품 산출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오히려 현실과 작품에 대한 작자의 진보적 인식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은 길동이 勇力을 뿜냄으로서 賊黨의 괴수가 되어 활빈당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다. 길동이 賊黨의 괴수를 정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음은 그야말로 우연이다. 그런데 길동 자신도 이

31) 完板本에서는 까마귀 울음소리로 암시하여 설득력을 주고 있다.

문득 창밖에서 7마귀 세번 울고 서으로 나라7거날 마음의 놀너 7로더(解感) 하니 7마귀 세번 깃조와 々々々 하고 서으로 나라7나 분명 주적이 오는지라 었던 수툼이 날을 휘코겨 7논고(『板全集』第三冊, 7장)

32) 鄭註東, 『洪吉童傳研究』, 文豪社, 1961, pp.246~247.f.

를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³³⁾ 모든 일이 天定이라는 생각은 고소설의 基底가 되는 일종의 문학적 관습(literary convention)이다.

한 예를 들면, 자천장자에게서 도망한 안락국이 바닷가에 닿으니 문득 옥저 소리 들리며 天童이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 때 안락국이 축수하는 말은 “하늘은 안락국이 부왕을 만나 부자상면하게 하여 주소서”(『安樂國傳』, 『小說選』, p.109.)이다. 불교의 포교담이라 할 작품인데도 축수할 때 부처가 아닌 하늘을 부르고 있다. 즉, 하늘은 人間의 壽夭·配匹·邂逅 등을 결정해 놓고 있으며, 또 人間에게 祝福·相違 등을 베풀어 준다³⁴⁾고 믿은 것이다.

그런데 흔히 『洪吉童傳』에 比擬되는 『田禹治傳』에는 우발적 사건이 거의 없으나, 전우치가 사찰 안의 장독대 밑을 名基로 점지받고 계교를 써서 증들에게 술과 떡을 잔뜩 먹여 잠들게 한 후 조부의 묘를 파묘하여 이장하고 달구질을 했는데 이 때 의외의 비가 와서 혼격을 지울 수 있게 된 장면³⁵⁾은, 전우치가 “一種의 超越者的 存在”³⁶⁾로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연의 일치라 아니 할 수 없다.

다. 九雲夢

이 작품은 거의 性眞의 夢中事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건의 우연성을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꿈 속에 꿈이 있으니 그 구성부터 특이하여 구조, 시간, 소재, 꿈의 의미, 주제, 사상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이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다.³⁷⁾

六觀大師는 성진을 豐都에 보내며 네 만일 오고자 하면 내 손수 데려올 것이라고 언질을 준다. 閻王은 어찌 한번 윤회의 괴롭기를 면하겠느냐며 성진을 인간세계로 내치는데, 八仙女 역시 地府로 내쫓겨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楊處士는, 兒子の 골격이 청수함을 보고 “이 아히 벽벽이 하늘

33) 오남수 하늘 지시각서 위연이 수고터 이르러시니 녹님호걸의 웃음장수 되미 엇더호요 하며 주청 하니…(完板, 10장)

34) 李能雨, “古小說에서 보여지는 民間 하늘(天)觀”, 『古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78, p.330.

35) …흙을 여전이 펼치고 장독을 그더로 노코 침수은 역군 거너리고 집으로 도라고 우치은 그곳의 머무니 의외 비가 오니 그 조취를 잊지 않니요

趙東一, 『전우치전』, 시인사, 1983, p.102. (金東旭 所藏 筆寫本)

36) 金一烈, “洪吉童傳과 田禹治傳의 比較考察”, 『語文學』 30號, 韓國語文學會, 1974, p.66.

37) 九雲夢 연구의 여러 측면에 관해서는,

金炳國, “九雲夢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韓國學報』 5輯, 一志社, 1976.

——, “九雲夢의 研究史의 概觀과 批判”, 『金萬重研究』, 새문社, 1983.

朴炳完, “九雲夢의 研究史의 省察”, 『古典文學研究』 3輯, 韓國古典文學研究會, 1986.

柳炳環, “九雲夢 研究에 대한 反省의 研究 I”, 『韓國文學研究』 9輯,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 1986.

——, “九雲夢 研究에 대한 反省의 研究 II”, 『柿園金起東博士回甲紀念論文集』, 同刊行委員會, 1986. 等を 참고할 것.

사툼으로 격강³⁸⁾하였음을 알아보며 “본디 세상 사툼이 아니라 그디(아내 유씨-筆者註)로 더브러 진세의 인연이 잇는고로” (p.26) 속세에 머문 사툼으로, 아내에게 말년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떠난다.

여기에서 독자는 사건의 전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서두에서 이미 전개와 결말이 암시되어 있어서 사건의 우연성을 대부분 설명해주고 있다. 또 후일에 필연 쓸 곳이 있으리라³⁹⁾며 거문고와 통소를 가르쳐 준 남전산 도인이 제자가 되겠다는 少游에게 “인간부귀를 그디 면티 못하리니…허물며 나종의 도라갈 곳이 이시니 나의 무리 아니라” (p.44)고 미래를 예시해 준다든지, 심요연의 스승이 요연을 자객으로 나가도록 권하며 “너의 전세 인연이 대당국 이시디 그 사툼은 큰 귀인이라…타일의 비남군등 창검 가운데 아랴다운 인연을 일우리라…네 급히 가 트번국 모든 주기를 결워 일죽(一邊)은 당장의 죄화될 구하고 일죽(一邊)은 너의 인연을 일우라” (p.210)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며 작품 전체의 伏線이 되고 있다.

이 작품은 꿈을 통해 사건의 진행을 암시하는 일이 다른 작품에 비해 많으며, 태몽보다 출산시의 꿈이 많은 것도 한 특징이다.⁴⁰⁾ 이 작품에서의 꿈은 전개 과정이나 결말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위기 해소의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꿈의 현실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이선이 꿈에 서왕모 잔치에 가서 상제가 선녀에게 명하여 주는 반도와 계화를 받는 증 계화 가지에 걸려 땅에 떨어진 선녀의 손에 건 옥지환의 진주를 집어드는 순간 잠을 깬데 깨어난 이선의 손에 진주가 쥐어져 있더라는 꿈(「淑香傳」(「板全集」, 四, 上 20장)처럼 꿈을 현실과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盤蛇谷에서 심요연의 권에 따라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 양소유가 잠깐 조는 중 용궁에 가서 용녀의 청혼을 받는데, 장수들도 꿈에 원수를 모시고 신병귀줄로 다녀 왔다고 말한다. 또 양소유가 致仕한 후 밤에 곧 잠들면 모포 위에서 참선했다는 말로 스스로 불가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꿈과 현실과의 연관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제 사건의 우연성과 연관되는 부분을 추출해 보겠다.

1. (전쟁의 발발) 새벽녘에 홀연 들으니 천만인이 지저귀는 소리 물끓듯하여 서쪽에서 오거늘 놀라 일어나 길에 나가보니 어지러운 군사와 피란하는 사람이 길에 매여 곡성이 진동하다. (p.40)
2. 상이 별전에 제시다가 홀연 양상서의 글과 필법의 기묘함을 생각하사 다시 보고자 하다. (p.182)

38) 最善本으로 인정되는 서울大 中央圖書館 所藏 國文筆寫本(四卷四冊)을 대본으로 한다.

鄭炳昆·李承旭 校注, 「九雲夢」, 民衆書館, 1972, p.24. (인용면수는 이에 의함.)

39) 난양공주의 꿈에 선녀가 통소 곡조를 전하는데, 뒤에 양소유의 통소 소리에 공주가 길들인 청학 한쌍이 옥담으로 날아들어 들의 인연이 맺어지는 계기가 된다. (p.172)

40) (최부인의 정경매 출산시의 꿈) 혼 선네 혼 손의 혼 닷 명주를 가지고 드러오거늘 보아더니 쇼저를 나흐니… (p.82)

(太后的 난양공주 출산시의 꿈) 신선의 뜻과 불근 진주를 보았더니… (p.170) 等.

3. (양소유가 황제의 親弟인 越王의 증매를 거절하고 하옥되었는데) 이 때 토번 오랑캐가 사십만 병을 일으켜 침범하다. (양소유가 풀려나게 되다.) (p.200)
4. (이소저와 만나는 계기) 일일은 여동 일인이 족자 두축을 鄭府에 팔러오다. (p.244)

1., 3.은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양소유가 당한 곤경이 오히려 福이 된 경우인데, 전쟁이 일어날 만하다는 前後狀況 설명이 없는 허술함은 있으나, 전쟁 자체를 우발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소설의 주인공이 文武를 兼全하고 出將入相함은 고소설의 관습이다. 주인공이 武才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가장 적당한 상황일 것이며, 주인공은 神性이 약화된 凡常한 인간과는 다른 것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처럼 갑자기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일은 인간생활에서 늘상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글과 필법의 괴묘” (p.182) 함에 있어서라. 또 여동이 鄭府에 족자를 팔러 온 일이 계기가 되어 이소저를 만나게 되는데, 生必品이 아닌 족자를 名門家에 팔러 온 일은 당연하다 하겠다.

용왕이 상계에 조회하러 가는 데서는 비인간계도 현실계처럼 위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동경 녀적 7늘제 소유로 조차미 면도의 티부(置簿)야시니 나는 불과 變명을 순종할 ㅅ툼이라” (p.224)이라는 양소유의 말을 통해서도 운명론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천상계의 위계는 「金牛太子傳」에서도 적실하니, “玉皇上帝께서 太白金星을 보내사 世尊에게 (孫悟空을 除하라고) 傳敎하시니 世尊이 合掌拜命” (『小說選』, p.130) 하였다는 데서는 世尊도 옥황상제가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교소설에서도 이러하니 사정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⁴¹⁾

輪廻에 의한 豫定論, 決定論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九雲夢」에서 우발적 사건이 많지 않음은, 작품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한다.

라. 趙雄傳

이 작품은 현전 방각본 이본의 수로 추정해 볼 때 가장 애독되었으며,⁴²⁾ 「劉忠烈傳」과 유사한 구성을 하고 있다.

天命觀에 의한 운명론을 바탕으로 지상은 天定이 재현되는 곳이라는 전제하에 전개되고 있으

41) 한 예로, “스몽비몽간의 일위 선동이 내려와…서가여러(釋迦如來) 제옵서 옥황상제께 고히와 인간 의 격거라 하옵시니…” (『田禹治傳』, p.94) 같은 전첨사 부인의 태몽을 들 수 있는데, 다음의 논술이 참고 된다.

인간 운명에 대한 ‘예정’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이제(천상)에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로 관념된 ‘옥황상제’로 명시되어 있거니와, 그 대행자와 같은 존재로 암시되고 있는데, 이는 時空 내지 人間에 관한, 오랜 동양적 사고의 소산으로 보인다.

黃滄江, “東洋的 豫定論과 小說의 構造: 世昌本 <淑香傳>의 分析的 考察”, 『覓南金一椽教授停年紀念 語文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91, p.11.

42) 趙東一(1987), op.cit., p.286.

니, 지상계에서의 싸움도 이미 예고되어 있다.⁴³⁾ 따라서 꿈을 통한 예시, 도사의 예언, 災變, 신물 등이 자주 등장하고, 이를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재확인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노래(동요, 참요)를 통해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七歲인 조옹이 “스톱의 스침은 지[지]천(在天) ㄱ음고 영옥은 지수(在數) ㄱ오니”⁴⁴⁾ 어찌 염려 있겠느냐며 모친을 위로하고 있으며, 달아나서 헤매다 만난 여승에게도 “스톱의 목숨이 하날의 잇스오니 하날이 죽기오면 죽스울 거시오 살이오면 살것스오니…”(上 13장) 하며 天命觀을 보이고 있다. 일대, 이대, 삼대 형제를 도운 도사가 조옹과의 대전을 말리며 “천시를 겨역 말고 그쳐 도라가즈”(三 24장) 하는 말, 길대와 그의 아들 위영을 죽인 후 “닐실지너이 부자동참(父子同斷)이 불상 ㄱ거이와 니 다 천슈(天數)라”(三 16장) 하는 조옹의 말 등을 통해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죽은 조승상이 나타나 급히 도망하여 수십리 가면 구할 사람이 있다고 한 왕부인의 꿈, 이두병의 凶慘을 알려준 황제의 꿈, 조정인의 불망비에서 얻은 조옹 모친의 꿈, 魏國 張進士의 딸이 얻은 佳緣을 잃지 말라고 부친이 현몽한 꿈과 청룡이 별당에 들어가 소저를 업고 나오는 위부인(장소저 모친)의 꿈, 辰時에 아들을 만나리라고 알려 준 조옹 모친의 꿈 등 수없이 많은 꿈은, 인간의 삶이 인력이 아닌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시를 하고 있다.⁴⁵⁾ 이는 「劉忠烈傳」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례로 마철에게서 피신한 노구의 집에서 다시 위기에 처한 장부인에게 피신하라 하라고 갈 바를 알려 준 꿈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한편으로 안도할 수 있는 것이다.

도사의 예언은 대개 天文을 보고 천기를 알아내어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 배를 띄워 조옹 모자를 구한 남악선생, 將星을 보고 몇달을 기다려 조옹에게 조옹검을 전하고 칠관도사를 추천해 준 화산도사, 조승상의 화상을 그리고 거기에 前頭苦行을 기록해 놓은 월경대사, 조옹에게 복병을 세우라고 알려주고 일대 형제에게 조옹과의 대전을 말린 번국의 도사, 不入函谷 先入城中 放砲一聲하라고 일러준 천명도사 등은 작품을 진행하는 활력소가 되고

43) 특히 「劉忠烈傳」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유충렬의 모친인 장부인의 태몽) 일원 선관이 청룡을 타고 너려와 말 ㄱ되 나는 청룡을 차지한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호고로 상계계 알되되…빅옥누 잔치시의 익성과 더전호 후로 상계계의 두[지]죽되하야 인간의 너치시미…(「板全集」 第二冊, 完板(上下 86張本), 上 3장)

(경한담은) 본더 천상 익성으로 재미된 더장성과 빅옥누 잔치의 더전호고로 상계계 득되하야 인간의 격강하야…(上 5장)

44) 先行本으로 추정되고 내용이 풍부한 完板 104張本(上, 二, 三)을 대본으로 한다. (「板全集」 第三冊, 上 3장)

45) 「淑香傳」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볼 수 있으니, 瓊液을 마시고 천상에서의 일과 인간에 격강하던 입을 알게 된 숙함에게 후토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인이 당승상 집의 가 전심 은혜를 갑흔 후의 티울 ㅅ 만나야 부모 거쳐를 알겨시니 그려 ㄱ면 주연 십오년 이리리이다…그더 아모리 밧부나 이의 하날이 경호신 쉬니 이제 두섯번 죽을 익을 지닌 후야 주연 지히 되리니 밧비 가소서(「板全集」 第四冊, 完板 64張本, 上 6장)

있다. 그리고 江湖刺使의 逼迫을 예견하고, 서강으로 가면 배가 있으니 강선암으로 가라는 유서를 장소저의 부친도 여기에 해당된다. 천문을 보고 나서 “네 저울 아논다 천심(天心)은 이러스스하고 장성(將星)은 저러스스하고 아모 별은 이러스니 디국이 네 손의 회복스리로다”(上 31~32장)하고, 大宋을 회복하라며 “티공을 일을 거시니 일본도 염예말고 나7 증원을 회복스고 평성 원슈을 갑프라”(上 32장)고 주저하는 조웅을 독려하는 철관도사의 행동은 작품 전체의 결말을 보이는 복선 역할을 하고 있다. 철관도사는 장소저의 死亡之患을 알고 조웅에게 丸藥 세개를 주며 구원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로 보면 신통력을 지닌 도사, 이들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조웅, 보조도구(조웅검, 순금갑주, 삼척검, 환약 등) 들은 다 예정된 대로 행동하고 정해진 자리에 있는 것이다.

천우치에게도 노승이 名基를 일러주며, “후일 귀히 될거시니…아무조록 멸예(緇禮)를 지닌 후의 천학을 두루 역납(歷覽)”(「田禹治傳」, p.98) 하라고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있다. 「劉忠烈傳」에서도 복적 진중의 도사 진진이, 선봉장 마룡을 만류하며(下 3장) 유십은 당대 왕후 기상이니 천명이 완연하다며 그를 죽이려는 정한담을 달린다.(下 11장)

白虎의 關內 橫行, 총렬묘 화상의 變色이나 땀같은 災變, 부채나 無孔珠 같은 信物도 사건 전개를 점치게 해 준다. 또 “목석합누(木石合淚)스고 일월이 무광(無光)스더라”(上 14장), “이놈(정한담-筆者註)도 본신이 천상 익성으로 인간 사람은 당스리 업더라”(「劉忠烈傳」, 上 30장)는 투의 서술자 개입과, “비난이다 비단[sic 난]이다 형산실령은…우리 유원슈를 츠자 니말을 전스되…”(「劉忠烈傳」, 下 21장 (太后가 胡王에게 붙잡혀 죽기 직전에 하는 말))는 식의 작중인물의 어투는, 독자의 同一視(identification)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善側의 인물이 고난에서 구원되는 것을 그 방법에 상관없이 당연하게 생각되도록 만든다.

고소설에서 서술자가 표출되는 것은 서술시점의 혼란이기도 한데, 고소설이 읽는다고보다 듣는 것이라는 특성에 연유한 것으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작품에 공통되는 현상이다.⁴⁶⁾ 작중인물의 善惡을 확연히 구분해 놓는 고소설에서 서술자는 惡人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적극적이고 철저한 懲治를 바라는⁴⁷⁾ 독자의 편에 선 것이라 하겠다.

우연성을 논의하기 위해 사건을 추출해 보겠다.

1. 조웅 모자가 도적을 만나 서로 헤어졌으나, 승상이 꿈속에서 일러주어 다시 만나다.(上 14~15장)

46) Cf. 金炳國, “古代小說 敘事體와 敘述視點”, 李相澤·成賢慶 編,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1983.

許禧, “民譚과 古小說의 敘述者”, 「연세어문학」 16집, 延世大 國文科, 1983.

47) 군담소설 중 특히 「劉忠烈傳」에서 철저한 복수 장면을 볼 수 있다.

(유충렬이 최일귀의 목을 칼끝에 찍어오니) 천자 일귀의 목을 보고 티분스사 도리 우의 울여노코 접스이 울리면서…(下 4장)

(유충렬이 황후, 태후, 태자를 구하고 호왕을 잡아 오니, 태자가) 호왕의 머리를 배혀 칼긔 썬 여들고 호왕의 간을 너여 낫스치 썬 후의…(下 23장)

2. 조웅 모자, 산승을 만났는데 바로 승상 화상을 그리고 前頭苦行을 기록했던 월경대사라. (上 17장) (대사에게 글과 술법을 배우고 대사의 권유로 出世하다.)
3. 우연히 화산도사를 만나 조웅점을 얻고 철산도사를 소개받다. (上 20~21장) (철관도사에게도 술법을 배우고 龍髓을 얻다.)
4. 서번을 치러 가는 길에 죽은 관서장군에게서 순금갑주와 삼척점을 얻다. (二 1~2장)
5. 조웅이 구해준 위왕은 부친의 죽마지우라. (二 4장)
6. 강호자사의 필박을 못이긴 장소저가 홀연 부친 임종시의 유서를 생각하고 이에 따라 월경대사와 媼母인 조웅 모친을 만나다. (二 10장)
7. (번왕이 흥심을 품고 태자를 초청했는데) 조원수 잠을 깨니 마음에 태자를 보고 싶은지라 급히 태자 사처에 들어가다. (태자를 구하다.) (二 28장)
8. 鶴山 가는 길에 태자에게 사약 내리는 사신을 만나 죽었는데, 출처없는 白虎들이 조웅에게 내달아 天使의 머리를 내던져 위기를 모면하다. (三 10장)
9. 鶴山에서 이두병의 木人을 만들어 처단하려 한 사람은 조웅 모친의 사촌인 왕태수라. (三 11장)
10. 조웅과 싸우다가 쫓기는 장덕에게 문득 山頭로부터 출처없는 白虎가 내달아 장덕의 앞을 막다. (三 18장)

1. 은 흥미를 위함이기도 하고 善한 사람에게는 신령의 보살핌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흥미의 고조라는 면에서 보면, 6.에서 장소저가 부친의 유서를 자결 직전에 봄으로써 위기가 해소되고 媼母까지 만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7. 역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위기상황으로 흥미와 관련이 있겠으나, 합리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3., 4.는 장차 大宋을 회복해야 하는 조웅의 임무와 天定으로 작품의 흐름으로 보아 예견되고 있는 점이다. 유복자인 조웅에게 특별한 태몽은 없지만, 이를 2.의 기록이나 대사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인공(hero)에게 원조자가 있음은 서사양식의 통례이다. 8.에서 조웅이 학산에 간 것은 採藥하는 女童의 노래(...암송의 저 장군은 갈길니 밤분지라/학손의 유스흔니 그리로 갈지여다(三 8장))에 따른 것인데, 갑자기 白虎들이 내달아 天使의 머리를 먹게 만들든 격개심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10.에서 白虎가 장덕의 앞을 막은 일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으니, 호랑이의 영묘함을 잘 이용한 것이다. 9.는 천명도사의 封書에 따른 것이니 엄밀한 의미에서 우연적 사건이 아니다.

2., 5., 9.는 '알고보니 ...였다'는 경우다. 徐仁錫은, 우연성이 나타나는 先行場面을, 善人(주인공측의 人物)과 主人公이 危機에 처했을 때, 主人公이 非凡한 能力이나 神物을 얻을 때, '알고보니'로 연결될 수 있는 先行場面과 後行事件의 경우로 나누고 있다. 셋째의 경우, 우연히 만난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진 친척이었다든가, 어떤 새 人物이 그 전의 어떤 人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른바 '관계의 認識'이라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분석은 우연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런데 셋째의 경우는 후행사건을 납득할 만한 선행장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劉忠

48) 徐仁錫, op.cit., p.156. passim.

烈傳』에서 예를 들어 보자. 狂風 덕분에 겨우 마철의 손에서 벗어난 장부인이, 회수에 투신하기 직전 물가에서 잠깐 줄 때 老翁의 현몽에 따라 山谷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물을 길러 온 부인을 만나 구원을 받는다. 그 부인을 따라 간 집이 이인학의 아들 이처사의 집이었는데 인학의 모친은 유주부의 從叔母였다. 그런데 장부인의 투신을 만류한 여인이 공교롭게도 이처사의 집에 사는 사람이었다 함은 어찌 설명해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말하자면 “汽車上의 奇緣”⁴⁹⁾이라 하겠다. 위의 2., 5., 9.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고소설의 우연성은 우연 그대로 인정을 하되, 운명론적 만남을 강조하고 독자에게 感興을 주려는⁵⁰⁾ 우리의 문학적 관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강승상의 후덕한 인품으로 보아 그의 덕을 입었던 羅將이 있음은 수증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하필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우연히 만날 수 있었다는 데 있는데, 전술한 대로 운명론적인 만남과 감흥이라는 관습으로 설명될 것이다. 14., 25.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26.의 경우도 관계의 인식인데 독자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려는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이두병의 진언을 들은 임금은 “오히려 그러히 너괴시나 그라나 정영이 밋지 안이학 시더라(上 4장)”든지, “우리 임군은 여일지히 망홀ㄴ 일사이 여습추라 언제나 망국홀고(上, 16 장)” 하는 백성의 童謠 들은 작품에 설득력을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마. 謝氏南征記

교씨의 아들을 독살하고 죽이라는 인아를 수풀 속에 감추는 시비 설매의 선악의 중간에 놓이는 행동, 세밀한 검증 과정도 없이 사부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유연수의 치밀하지 못한 행동, 제자식까지 죽여가며 남편의 專寵을 받고자 하는 교씨의 극독한 성격, 교씨가 유연수의 총애를 얻고자 갖은 수단을 쓴 것도 결국 재산을 독차지하여 동청과 안락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점 등 특이한 점이 많은 작품이다.

역시 모든 일이 운명론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작중인물이나 서술자의 말 그리고 예언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은 사건 진행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데 몇 예를 들어보겠다.

(두부인이 사씨에게) 이는 도시 變境호 쉬니 과도히 심사를 상히오지 말나(p.489)⁵¹⁾

(유모가 사부인을 위로하며) 하늘이 늑호시나 살피시미 소々하시니 엇지 뒤양 이려호리오(p.499)

49) 金東仁, “春園研究”, 『金東仁全集』 卷六, 三中堂, 1976, p.91.

50) 이러한 관계의 인식은 그것이 뜻밖일 때, 즉 우연에 의해 드러날 때 더욱 큰 감흥을 준다. 그런데 이 점은 관계의 事後確認보다 우연한 만남 자체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령 『劉忠烈傳』에서, 소부인과 강남자가 투옥되었을 때 평소 강승상의 은혜를 입은 羅將에게 구원을 받는다. 강승상의 후덕한 인품으로 미루어 충분히 수증이 가나, 논의의 초점을 우연히 위급한 상황에서 만났다는 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1) 仁川大 民族文化研究所 編, 『舊活字本古小説全集』 卷四, 銀河出版社, 1983.

(사씨의 꿈에 나타난 시부모가) 현뿔 칠년 직익이 잊시니 당숙이 남녘으로 멀리 피흘지라…이 후 육년 스월 십오일에 비를 뵈빈쥬에 밋었다가 급흔 스통을 구하라…그디 이 곳에 오리 머무지 못홀 거시니 썰니 도라가라(p.497)

(상제의 명을 받은 舜의 二妃가 사씨의 자살을 만류하며) 이로 다 천명홀 쉬니 아모리 죽고져 하나 무가너하라 마음을 관심하라(p.504)

(서술자) 초호 석저라 교네 남을 잡으려 하야 재 주식을 죽이니 엇지 천되 무심하며 만고찰네 아니리오(p.490)

사씨의 시비 설매에게 흠치게 한 신물 옥지환은 사씨를 좃겨나게 한 빌미가 되는데, 냉진이 일부러 유연수에게 웃고름 속의 옥지환을 보임으로써, 사씨가 유연수의 의심을 받게 되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pp.482~483) 인아에게도 신물이 있었으나 인아가 유모를 알아보게 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처첩은 가증을 어지러이는 근본”(p.470)이라는 유연수의 말은 작품의 전체적 복선이 된 셈으로 결국 가증이 문란해졌는데, 그로 인해 술한 고생을 겪은 사씨가 다시 묘혜의 질녀를 첩으로 천거하는 점은 대를 잇는 일이 지상명재임을 알려준다.

단락을 좃아 우발적 사건을 살펴보겠다.

1. 사씨가 남으로 가는 배를 얻지 못하여 근심하더니 마침내 남경으로 가는 商賈船을 만났는데, 그 배의 船人은 杜府에 있던 상두라.(p.498)
2. 林哥 여자의 집에서 토사병을 치료한 후 다시 배 타고 갈 때, 老蒼頭는 죽고 사씨의 운액은 점점 닳쳐오는데, 홀연 풍량이 대작하며 악양루 아래에 이르다.(p.500)
3. 일진순풍을 만나 순식간에 군산사의 水月庵에 도착한 사씨가, 禮佛 후 문득 놀라보니 16년전에 자기가 지어 쓴 바 백의 관음화상이라, 그 때 글 받아 간 우화암 묘회를 만나다.(p.508)
4. 사씨가 인가에서 만나 여자의 어질던 바를 칭찬했는데 바로 묘혜의 질녀라. (후에 사씨가 천거하여 유연수의 첩이 되다.)(p.509)
5. 유한림이 없는 때를 타 달 길은 곳에서 교녀와 동청이 수작하다가, 동청이 우연히 서안 위에서 한 글을 얻어내니 한림의 所作이라. (이에 동청이 편지를 들고 가서 엄승에게 알려 讞하는 것으로 고향) (p.513)
6. 문득 북에서 役들이 길을 쓸기에 유한림이 숲에 숨어 보니 계림태수로 부임하는 동청이라. (p.518)
7. 유한림이 주점에서 점심 후 쉬더니 문득 맞은 집에서 한 女娘이 나오는데 한림이 자세히 보니 설매라. 설매는 교서를 따라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옷을 갈아 입으려고 이 店에 들른 것이다. (그간의 사정을 들어 알다.) (p.518)
8. 유한림이, 동청이 보낸 賊徒를 피해 뒷문으로 달아났으나 멀리 못가서 길이 盡하고 大海 임하였는지라. 溺水하려는데 문득 배 짓는 소리 온온하거늘 묘혜가 탄 배라. (p.521)
9. (동청을 고발하여 많은 상급을 받은 냉진이 재물을 훔어 교녀를 사내어 주점에서 술 취해 자더니) 車夫 정대관은 본시 賊流라. 이밤에 다 도둑질해서 달아나다. (p.526)
10. 유한림이 성명을 감추고 농업에 힘쓰던 중 조정에서 찾으니 무창에 나가 복명하러 가는 길에

남창부에 이르렀는데, 남창부 지방관은 바로 사씨의 오빠 사경이라. (pp.527~528)

11. (설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강변에 버린) 인아가 크게 우니 마침 남경 장사차로 가는 배가 인아의 相貌 비범한 것을 보고 한 고요한 곳을 찾아 두고 가더라. (林哥 여자, 꿈을 꾸고 을 밖의 인아를 구하다.) (p.531)

1., 11.은, 우연이 주로 선한 편에 작용하여 그를 곤경에서 구하고 갈길을 인도함을 보여주는 한 예다. 2., 3., 8.은 꿈이나 예언을 통해 보인 천상계의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에 불과하다. 5.는 유연수가 곤경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고 9.는 약한 자에게는 應報가 반드시 있음을 보이는 것이나, 인과성이 전혀 없는 우발적인 사건이라서 구성이 치밀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다.

창두·묘희·묘희의 질녀·동청·설매·사경와의 만남인 1., 3., 4., 6., 7., 10.은 '알고보니 ...였다'는 관계의 인식이다. 가령 설매가 '하필' 말에서 떨어져 옷을 갈아 입느라고 지체하게 되어 유연수를 만나므로써 저간의 사정이 밝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기임에도 작위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으며 이야기들 진진하게 끌고 가는 힘이기도 하다. 특히 4.에서 만난 묘희의 질녀가 인아를 구하고 유연수의 첩이 되는 것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 경우 우연의 일치라는 공교로움을 면할 수 없겠으나, 작품의 통속성이나 흥미성의 고조를 위한 중세기 서사양식의 관습으로 이해된다.

바. 沈淸傳

곽씨부인의 태몽에서 보듯 심청의 전생이 선녀이고 보면 우발적 사건이 없을 수 없다. 꿈에 의해 사건 진행이 주도되는데도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이어서인지 이를 합리화하려는 설명이 많이 들어가서 독자(청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고 있다.

우발적 계기를 보이는 사건을 추출해 보겠다.

1. (심청을 제물로 바치고)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십만 금퇴를 내어 고국에 돌아오다가, 심청이 들어있는 오색채운의 꽃봉오리를 발견하다. (p.110)⁵²⁾
2. 이 때에 宋 천자, 황후가 봉하신 후 간택을 아니하시다. (p.112)
3. (심봉사 시냇가에서 목욕하고 나와 보니 의관행장이 간 곳 없거늘) 이 때 황성에 갔다오는 무릉태수 행차를 만나 의복과 노자를 얻다. (pp.128~134)
4. 황후와 정열부인 안씨가 동년 동월에 잉태하여 동월에 탄생하니 둘이 다 득남하다. (pp.158~160)

52) 「沈淸傳」의 판본은, 문장체소설의 성격을 띤 京板 翰南本系와 판소리와 깊은 연관을 갖는 完板 71 張本系로 대별되는데, 대체로 京板先行說이 좀더 사실에 근접하는 견해로 받아들여진다. (鄭夏英, 「沈淸傳」, 『韓國古典小說作品論』, op.cit., pp.538~541. passim.) 그러나 본고에서는 여러 이본 중 내용이 가장 다채롭고 흥미로운 완판본 중 선행본인 완판본(朴魯春·金根洙 所藏本)을 대본으로 한다. (崔雲植, 「심청전」, 시인사, 1984(해제), p.17. -인용면수는 이에 의함.)

1.은 이미 예정된 일인 바, 심청이 자기를 샀던 상인들에 의해 발견된 공교로움은 흥미를 위한 것이리라. 이 점은 4.에서 잘 드러나는데, 결말을 좀더 완벽하게 장식하려는 고소설의 관습적 결구이다. 2.는 심청이 후궁이 되지 않게 하려는, 즉 심청의 효행에 대한 보상이 완벽하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의 표출로 해석된다. 3.은 이야기의 진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장면이나 부분이 증시되는 판소리의 특성에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에서도 꿈은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가령 行船 직전의 심청에게 두 부인(舜의 二妃)이 나타나 "지극한 네의 효성을 기록코져 나왔노라...수로 먼먼길의 조심하여 단여오라" (p.86) 하고 위로하는 말에서 결말을 짐작할 수 있다. 마치 「劉忠烈傳」에서 일위 선관이 타고 온 청룡을 五雲間に 放送하며 "일후 풍진 중의 너를 다시 차질리라" (上 4장) (장부인의 태몽) 하여 전쟁을 암시하는 것과 같다. 안씨 맹인이 심봉사를 문밖에 나와 기다려 인연을 맺은 것도 자신의 꿈(호 우물의 휘와 달리 셔려져 물의 잠기거늘...호날의 일월은 사물의 안목이라 일월리 셔려지니 날과 갖치 밍인인 줄 알고 물의 잠겨쓰니 심센줄 알고... (pp.146~148))을 따른 것이다. 또 안씨 맹인과 동침 후 심봉사가 얻은 꿈은 "니 몸이 불의 드러가 보이고 가족을 버겨 복을 밋고 쏘 나무넙피 셔려져 뿌리들 업피여 (p.14)" 보이는 것이었는데, 궁중에 가고 자손 만나는 꿈이었던 것이다. 꿈은, 사건을 예시하고 작품 전체를 이끌어 나갈 뿐 아니라 현실의 삶도 좌우하고 있다.

그리고 네 前世는 분명히 선녀라며 "분명 인근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 부르시리 네 어이 피홀손야" (p.78) 하는 무릉촌 장승상의 말, 심청이 쓴 장승상대 족자의 변화(무리 호토고 빗치 변하여 거머지니...이육고 물리 것고 빗치 도로 황홀하여지니... (p.102)) 등의 예언이나 예시를 통해서도 사건 전개를 짐작할 수 있다.

판소리계 소설에서 특히 서술자의 개입이 많은 것은 다분히 그 장르적 특성에 연유하는데, 前述한 대로, 비판소리계 소설에서도 나타나는 고소설의 공통된 현상이다. 이 작품에서는 선악의 판단보다 전후상황을 설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몇 예를 보자.

(곽씨부인이 뜻밖의 산후별증이 났을 때) 현철하고 음전하신 곽씨부인 회복한 초칠일 못다가서 의풍을 과이 썩야 병이 낫네 (p.30)

(심청이 팔려가는 날 심봉사가 꿈을 꾸니) 이는 부자간 천륜이라 몽조가 있던 거시였다 (p.70)

(심황후가 심봉사와 만났을 때) 부자간 천륜의 잊지 그 말삼이 쓴치기를 지달이라만은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거시였다 (p.152) 살리라 하니 살인 줄 알것만은 근본 보지 못호 얼굴이라 알 수 잇나 (p.154)

작중인물들간의 갈등이 거의 없는 이 작품에서도 다른 작품과 같이 우발적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심청의 通過儀禮라는 작품의 성격과 고소설의 관습이 혼효된 때문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작품을 대상으로 우연적 사건을 살펴보았다. 우연은 태몽을 비롯한 꿈, 예언, 인간 관계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적으로 天定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상계는 천상계에서 예정된 일을 실현하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연이 주로 善側에 일어나는 사실은 독자의 소망충족이라는 점에, 특히 인간 관계의 인식은 흥미의 고조라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모두 고소설의 관습으로 독자는 이를 별 이의없이 수용하였으니, 事必歸正, 福善禍淫이라는 독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소위 “汽車 속의 奇緣”이 있다. 이는 소설 구성의 미숙함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설이 數式이 아닌 한, 잘 짜여진 극(well-made play)이라 할지라도 이를 일일이 짜 맞추기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현대소설과 달리 지상계를 천상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며 豫定論을 基底로 하고 있는 고소설은 더욱 그러하다.

3. 事件의 合理性을 위한 機制

현대소설의 우연성은 다분히 의도적이지만, 고소설의 우연성은 여러가지 점에서 성격이 다른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작가의식이나 세계관의 변화는 고소설도 어떤 틀 안에서나마 합리성을 띠도록 배려하고 있다. 꿈을 통한 예시, 서술자의 개입, 신물(신표) 등이 그것이다.

태몽을 비롯한 꿈은 예언, 신탁, 저주, 축복 등과 함께 “미래 불확실한 예시”⁵³⁾다. 독자는 이미 일어날 사건에 대해 암시를 받았으므로 ‘왜’보다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꿈은 작품 전체의 복선이며, 천상의 질서를 지상에 실현하는 수단이다. 가령 『薔花紅蓮傳』에서 “문득 한 선관이 하늘노서 내려와 솟송이를 두거늘 부인이 보드려 홀 즘음의 홀연 광풍이 소리 솟출 부(sic 무)러 물속으로 드리치거늘 부인이 놀나 서다르니 남가일몽이라”(『板金集』第五冊, 17~18장)는 배진사 부인 강씨의 태몽은, 사건 전개를 암시할 뿐 아니라 자못 상징적이기까지 하다. 꿈의 세계는 불가사의한 일종의 이상향이므로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인간계에 격강한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이나 고난이 충분히 수증된다.

서술자의 개입은 고소설의 특징인데, 어떤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자기의 관념으로 윤색하고 판결하여 전하고 있다. 논평적 서술자(editorial narrator)의 잦은 개입을 통해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동일시를 촉진하여 사건을 일반화하고 합리화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하겠다.

흔히 奇逢의 모티브가 되는 신물(신표)은 흥미를 고조시키는 한 요인인데, 『劉忠烈傳』처럼 작품의 결말을 암시하기도 한다.((태어난 총렬의 背上面) 주홍으로 색여스되 더명국 더사마 더원수라 온수이 박켜잇고...(上 5장)) 그러나 대체로 奇逢類小說 외에는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⁵⁴⁾

53)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文學과 知性社, 1990, p.233~240. passim.

54) 奇逢類小說의 여러 측면에 관해서는, 梁惠蘭, “奇逢類小說 研究”, 梨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을 참고할 것.

'알고보니...였다'는 것은 앞에 선행장면이 있었다 해도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문제는 '하필 ...였다'에 있기 때문에 고소설이 우연성의 남발이라고 평을 듣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점을 두고 하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사건 전개에 흥미를 더하는 것이지만, 우연성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중세기의 서사양식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인공들의 태몽이 없고 비교적 사실적 묘사를 하고 있으며⁵⁵⁾ 후기작에 속하는⁵⁶⁾ 「林花鄭延」에서도, 길가에서 방황하던 정연랑 일행이 老蒼頭 數人을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보니) 이들이 花尚書의 蒼頭더라(p.145)는 식의 전개를 하고 있다. 이 점은 한편 소설 구성의 미숙이지만 중세기 서사양식의 관습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사항—우발적 사건에 빈번히 등장하는 상투어처럼 문학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재제, 형식, 기법 등의 특징들은, 고소설의 관습이다. 독자나 관중에게 현실의 환상을 성취해 주는 것,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그럴듯하게 여기는 것(plausibility)이 필진성(versimilitude)⁵⁷⁾이라면, 여기에 대한 판단은 독자가 하게 된다. 어떠한 문학이든 실제적인 사실(fact)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이 '그럴듯함'은 과학적 경험보다 상상력과 당위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관념에 입각해 있는 것이므로, 문화적 환경과 시대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⁵⁸⁾ 그러므로 독자는 이를 관습 속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술이 참고된다.

청중은 관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해석하고 인지하게 된다. ...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는 실제적인 것보다는 있음직함에 대한 고대적 관심인 필진성의 의미와 아주 유사하다. ... 비록 서사적 허구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이 작품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해도, <리얼리티> 혹은 <있음직함>을 구성하는 것은 문화적 현상인 것이다.⁵⁹⁾

4. 古小説의 觀念的 必然性

조선 후기의 소설은 다른 작품에 비해 우연성이 감소되고 있지만, 고소설이 전체적으로 우연성

55) 주인공 중 一人인 임규의 용모 묘사를 보겠다.

삼세시에 두역을 어더 신고한 고로 얼굴이 격이 검고 털이 땃스매 범안으로 심상이 보아 지났치면 아람답다 하기 어려우나 그 재질은 가위 천고괴남이니 범인이 뉘 능히 알리오 (「林花鄭延」上, 東國大 韓國學研究所 編, 「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八卷, 亞細亞文化社, 1976, p.9.) 얼근 코와 거문 빛이며 너른 턱이 일호도 아릿다운 신량이 아니요 봉안이 검고 양미 사이에 거문 사마귀 한줄로 잇고 장대한 모양이 극히 추루한지라 (p.39)

56) 「林花鄭延」이 제작된 시기는 올려 잡아도 18C末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許禧, 「林花鄭延 考」, 「연세어문학」 17집, 1984, pp.109~114.

57) M.H.Abrams 著·崔翔圭 譯, 「文學用語事典」, 大邦出版社, 1985, p.312.f.

58) 林在海, 「존재론적 구조로 본 설화 갈래론」, 成書說·崔仁鶴 共編, 「韓國·日本の 說話研究」, 仁荷大學校 出版部, 1987, p.25. f.

59) S.Chatman, op.cit., pp.56~57.

이 절다는 사실은 고소설 작가·독자들의 필연성에 대한 관념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조선조인들은 지상의 모든 일은 하늘이 주관하고 있다는 敬天信仰 속에서 살았으며 천상계의 질서가 지상계에 그대로 이입·반영된다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독자는 작품 속의 세계를 “實在世界的 反映”⁶⁰⁾으로 의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계의 경험적인 사고방식에서 우연인 것이 천상계의 원리상 필연이라고 하는 설정은 이원론적 작품 구조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우연과 필연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작품구조를 무시한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견해⁶¹⁾는 설득력을 지닌다. 모든 사건은 그 자체가 필연이나 우연을 구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필연적인 구조로 파악되고 이해불가능이면 우연적인 구조⁶²⁾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천상계에서 있었던 前事를 암시함으로써 사건을 진실감있게 느끼게 해주며 이를 작품의 전체적 복선으로 삼았다. 따라서 원조자의 출현이나 현몽은 정연한 천상계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의 삶에 작용하는 우연적 사건의 힘을 느끼게 한다. 「雲英傳」에서 노비 특이 절에 가서 사악한 축원을 하다가 우물에 빠져 죽은 우발적 사건도 이러한 의식의 일단을 보이는 예다. 고소설의 인물이나 사건은 소망충족의 성격이 강함⁶³⁾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이 된다. 꿈의 현실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결과이며, 道仙的 世界觀⁶⁴⁾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고소설의 세계관이 초월주의적이냐 현실주의적이냐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朝鮮朝 末期까지의 文學作品上에 반영된 한국 민족의 存在論的 苦惱가 超越主義나 現實主義의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파악될 수 없다⁶⁵⁾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두 세계관에 대한 등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연은 주로 善側에, 즉 독자가 동일시를 일으키는 인물에 일어나므로, 독자가 이를 흠잡을 까닭이 없다. 고소설의 주인공은 이상적 인물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이 고소설의 완전함을 말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니, 환경의 계기로 인한 필연성이란 면에서 감동의 폭은 자연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소설의 작가는 인간의 삶이 불확실한 우발성에 의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독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설 장르(genre)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60) 金一烈(1973), op.cit., pp.72.

61) 趙東一(1977), op.cit., p.335.

62) 이봉채, 「소설구조론」, 새문사, 1984, p.225.

63) Cf. N. Frye, op. cit., p.260.

許椿(1986), op.cit., pp.91~93.

64) 國文學의 道仙的 世界觀에 관해서는

金錫夏, 「韓國文學의 樂園思想研究」, 日新社, 1973.

李鍾殷, 「韓國詩歌上의 道敎思想研究」, 普成文化社, 1978.

崔三龍, 「韓國初期小說의 道仙思想」, 螢雪出版社, 1982. 등을 참고할 것.

65) 李相澤, 「樂善齋本小說研究: 그 예비작업으로서의 婚事障碍主旨를 中心으로」, 「韓國古典小說의 探究」, 中央出版印刷株式會社, 1981, p.328.

인간의 삶이 인과성보다 우발성에 의해 많이 좌우되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대체로 위급한 상황이 반전되어 상승되는 과정에서의 계기가 우연적인데, 이러한 구조에서 행복한 결말은 필연적이다. 독자는 그들 나름의 세계관으로 현실을 인식하여 인과적인 것을 그리면서 읽게 되므로 이를 합리적 사고로 판단하려 함은 잘못이다. 여기서의 세계관-특정이념을 꼭 유교이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아마도 막연한 하늘에 대한 傾倒라고 함이 더 적절할 것이다.

소설은 架空構虛之說에서 나온 것이며 支離煩瑣하나 福善禍淫의 이치와 悲歡得失·賢愚善惡의 경계와 분별이 있다고 한 언급⁶⁶⁾은,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선적 세계관 또한 한쪽 수레바퀴에 해당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소설의 '소설적 진실'은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설의 허구를 현실적 논리로 해명하려는 함은 무리이다.

서사물에서의 인과성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암시적으로 감춰질 수도 있으나 심층구조상에서는 인과관계가 양자 모두에 존재한다. 독자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채워넣기 마련인데,⁶⁷⁾ 이 점은 고소설에서도 다를 바 없다.

Ⅲ. 結 論

지금까지 「金鈴傳」, 「洪吉童傳」, 「九雲夢」, 「趙雄傳」, 「謝氏南征記」, 「沈濟傳」 등 6작품을 주 자료로 하여 고소설의 우연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고소설의 우연은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여서 고소설의 결함인가 또 그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점과 아울러 고소설의 내면적 관습에 관해서도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나, 작품의 전개 과정을 치밀하게 보지 못하고 항목 추출이 恣意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우연성을 일일이 검증해 보려 한 것이 어느 면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검토해 보므로써 고소설에 우연성이 남발된 결함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소설의 우연성에 관해 이론적으로 정리해 본 다음, 고소설의 제반 상황과 사건 단락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사건의 합리성을 위한 機制와 고소설의 관념적 필연성을 작가·독자의 세계관과 연관지어 해명하여 보았다.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작가 고도의 정신적 산물인 현대소설

66) 始於男女婚媾 而歷絃閣房行蹟 互有異同 皆架虛鑿空 支離煩瑣 固無足取 然至若人情世態 善於模寫 凡悲歡得失之際 賢愚善惡之分 往往有令人觀感處(「六美堂記」小序)(金起東 編, 「筆寫本古典小說全集」卷一, 亞世亞文化社, 1980.)

世之謂小說者 語皆鄙俚 事亦荒誕 盡歸於奇談詭譎 而其中所謂南征感義錄數篇 令人說去 便有感發底意矣…噫 是書之作 雖出於架空構虛之說 便亦有福善禍淫底理 則此豈非罪我知我者乎(「一樂亭記」序)(Ibid., 卷五)等.

67) S. Chatman, op.cit., pp.52~53. passim.

과 고소설은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고소설은 실화의 영향이 매우 커서 창작이면서도 적층적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우연은 사건 자체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작품 전체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사건 자체로는 우연의 일치일지라도, 天定임을 강조하는 꿈, 서술자의 개입, 신물(신표) 등은 작품의 전체적 복선이 된다. 지상계는 천상계에서 예정되었던 일이 실현되는 곳이라는 관념과 善者는 必興이라는 의식은, 우연의 일치를 별 거부감없이 수용하고 나아가 이를 일면 당연시하게까지 되었다. 고소설의 우연이, 주로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난다든지 하는 상승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모든 사건은 그 자체로 우연·필연의 구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연을 우연으로 느껴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연성 논의의 전제가 된다. 소설에 비판적인 사대부의 의식도 윤리성에 압도되어 우연성을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이 점은 善한 사람이 위기에서 救함을 받는다든지, 오해가 풀려 사건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된다든지, 惡人이 벌을 받는 일에 우연적 사건이 일어나는 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된다.

고소설의 우연적 사건은, 무엇보다 주인공(hero&anti-hero)의 前身을 일러주고 주인공에게도 행동 방향을 제시해 주는 태몽을 비롯한 꿈으로 암시된다.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 도사의 예언, 매개물이나 보조도구를 통해서도 예시된다. 작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독자의 판단과 동일시를 유도하고 보조도구나 신물(신표)로 이야기의 흥미를 고조시키고 있다. 고소설의 주인공이 이상적 인물이라는 점은 동일시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우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알고보니...였다'는 것은 선행장면이라 할만한 부분이 없기도 하거니와 '우연한 만남' 그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이다. 이는 소설 구성의 미숙이기도 하지만, 흥미의 고조라는 목적과 함께 일종의 문학적 관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고소설의 우연성은 결함이라기보다 중세기적 서사양식의 속성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우발적 사건이 많으면 작품의 설득력이 감소되지만 모든 작품이 마치 數式처럼 완벽하게 될 수도 없고 또 그리 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고소설은 우연성이 그리 많지 않고 또 그 나름의 치밀함도 갖추고 있다. 소설에서의 우연은 물론 불합리한 것이지만, 남발되지만 많으면 오히려 작품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인간의 삶 역시 온통 불합리·부조리 투성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 李德懋, 「靑莊館全書」(민족문화추진회, 1978.)
- 金起東 編, 「李朝傳奇小說選」, 正音社, 1978.
- , 「筆寫本古典小說全集」, 亞細亞文化社, 1980.
- 金東旭 編,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延世大 人文科學研究所·羅孫書屋, 1973~1975.
- 東國大 韓國學研究所 編, 「活字本古典小說全集」, 亞細亞文化社, 1976.
- 仁川大 民族文化研究所 編, 「舊活字本古小說全集」, 銀河出版社, 1983.
- 鄭炳昱·李承旭 校注, 「九雲夢」, 民衆書館, 1972.
- 趙東一, 「전우치전」, 시인사, 1983.
- 崔雲植, 「심청전」, 시인사, 1987.
-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1959.
- 金東旭·黃滄江, 「韓國古小說入門」, 開文社, 1985.
- 金東仁, 「春園研究」, 「金東仁全集」卷六, 三中堂, 1976.
- 金炳國, 「古代小說 敘事體와 敘述視點」, 李相澤·成賢慶 編,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1983.
- 金一烈, 「古代小說의 二元論의 世界觀과 儒敎」, 「語文論叢」8號, 慶北大 國文科, 1973.
- , 「洪吉童傳과 田禹治傳의 比較考察」, 「語文學」30號, 韓國語文學會, 1974.
-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文學과 知性社, 1990.
- 朴湧植, 「古小說의 原始宗教思想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6.
- , 「金鈴傳」, 玩巖金鎮世先生回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編, 「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
- 徐仁錫, 「古代小說에 있어서의 '偶然性' 問題: 「劉忠烈傳」을 중심으로」, 「先濟語文」10輯, 서울大 國敎科, 1979.
- 우리어문학회 編, 「國文學史」, 秀路社, 1948.
- 윤성근, 「유학자의 소설 배경」, 「語文學」25輯, 韓國語文學會, 1971.
- 李能雨, 「古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78.
- 李文奎, 「洪吉童傳」, 「韓國古典小說作品論」, 前揭書.
- 李商燮 編, 「文學批評用語事典」, 民音社, 1976.
- 이봉채, 「소설구조론」, 새문社, 1984.
- 李相澤, 「韓國古典小說의 探究」, 中央出版印刷株式會社, 1981.

- 이윤석, 《홍길동전》 필사본 89장본에 대하여, 「애산학보」 9호, 애산학회, 1990.
- 林在海, “존재론적 구조로 본 실화 갈래론”, 成著說·崔仁鶴 共編, 「韓國·日本の 說話研究」, 仁荷大學校 出版部, 1987.
- 丁奎福, “洪吉童傳 異本考(1)·(2)”, 「국어국문학」 48·51호, 1970·1971.
- 鄭註東, 「洪吉童傳研究」, 文豪社, 1961.
- 鄭夏英, “沈濟傳”, 「韓國古典小說作品論」, 前掲書.
- 趙東一,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 韓國文化研究所, 1973.
- ,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77.
- 조정래·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1.
- 한경호, 胎夢을 통해 본 古代小說의 偶然性, 「飛獅論集」 創刊號, 啓明大 學徒護國團, 1978.
- 한용환,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1990.
- 許椿, “民譚과 古小說의 叙述者”, 「연세어문학」 16집, 延世大 國文科, 1983.
- , “林花鄭廷 考”, 「연세어문학」 17집, 延世大 國文科, 1984.
- , “古小說의 人物 研究: 仲裁者를 中心으로”, 延世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 黃滄江, “東洋의 豫定論과 小說의 構造: 世昌本 〈淑香傳〉의 分析的 考察 —— 刊行委員會 編, 「覓南金一根教授定年紀念 語文學論叢」, 1991.
- Abrams, M.H. 著·崔翔圭 譯, 「文學用語事典」, 大邦出版社, 1985.
- Chatman, Seymour 著·김경수 譯,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이야기와 담화」, 민음사, 1990.
- Frye, N. 著·임철규 譯, 「批評의 解剖」, 한길사, 1982.
- Goldmann, Lucien, “발생구조론이란 무엇인가”, 金治洙 編譯,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弘盛社, 1980.
- Kripke, Saul A. 著·정대현·김현주 譯, 「이름과 필연」, 서광사, 1986.
- Shipley, Joseph T. ed., *Dictionary of World Literature*, Totowa, New Jersey, Littlefield, Adams & Co. 1972. (New Revised Edition)

Summary

A Re-examination of Non-causality in Kososŏl

Heo chun

It has been indicated to be a weak point that the construction of event in Kososol is likely to depend upon non-causality. Namely, Kososŏl had tended to depict the world fantastically on the basis of an excessive non-causality, without necessarily logical moment and causal possibility.

With such an implication, this paper re-examined the inevitable conceptual necessity in the construction of events in Kososŏl. For this, 6 texts such as *Keumryongchŏn*(金鈴傳), *Hongkildongchŏn*(洪吉童傳), *Kuunmong*(九雲夢), *Choungchŏn*(趙雄傳), *Sasinamjeongki*(謝氏南征記), and *Simcheongchŏn*(沈清傳) were reviewed, with an approach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stories in terms of the internal mechanism for rationality, the author's consciousness, and readers' consciousness.

This approach reached a conclusion that all events can not be attributed to non-causality if the author and readers do not feel to be causal, and all events themselves include own internal logical necessity. Especially, the events in Kososŏl was developed in two ways. One was the predestination determined by the will of Heaven, the other the fatalism. The development of events in such ways gave a rationality to every event, with use of such concepts as dream, prophecy, assistant means, evidential object, marked evidence, and the intervention of critical descriptive writer, etc. This resulted that very few events are non-causal.

Especially, dream was functioned to be a bridge of which the event predestinated in the Heaven world is realized in the Ground world. This way of story development had been a whole preparation of literature works, because most people of Yi dynasty tended to believe that the dream is realized.

Some works produced in the latter Yi dynasty also showed non-causal events. This was caused by the world perspective of transcendentalism being mixed with realism. However, the non-causality tended to come about mostly for the good, with a happy end. This is very natural in Kososŏl whose major function is to fulfil readers' wish. Therefore, this

may be interpreted as a conceptual necessity which induces the readers' identification with the hero in the work.

However, the novelistic structure of such describing that 'after all, it was turned out to be him/her' should be understood either for increasing the climax of interesting or as a literary convention, rather than to be discordant with the epic genre in the medieval ages.

Therefore, it may be concluded that considering the world perspective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epic genre included in *Kososŏl*, the non-causality is not a weak point, but its characteristic.